

진흙냄새 물씬한 우리의 표상(表象)을 되살려야

Reviving Our Emblem - The Smell of Earth

김정동 /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by Kim Chung-Dong

LA 다저스의 박찬호와 나고야의 선동렬, 그리고 월드컵 축구 열풍에 빠져 금년은 정신없이 가버린 느낌이다. 특히 한일전은 마치 전쟁 같았다. 선수들은 백병전을 치르는 전사였다. 국가가 출령이고 국가가 울려 퍼지고 이것이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두 나라의 기자들 모두 중군기자같이 시시각각 전투 결과를 타전했다. 스포츠 게임이라기 보다는 총없는 현대전이였다. 그런데 만약 '건축'에서 한일전을 치른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축구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뉴스만 봐도 안도 다다오는 도쿄대 교수가 되고 있고 이에 맞서 다카마쓰 신은 교토대 교수가 되는 판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안방 대물림할 교수 뽑기에만 여념 없는 것 아닌지. 대학교수는 도대체 그 대학 출신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만고만한 나이에 신분 상승만 노리는 세태가 안타깝다. 거기에 더하여 이상 입시전쟁 열풍도 불어닥치고 있으니 우리 교수들은 건축과 인기상승 붐을 즐기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졸업 후 머리 좋은 패잔병이나 속출하지 않을까 지레 겁이 난다. 열병 같은 미몽을 벗어나니 허탈에 휘말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은 멈출 줄 몰라 멀게만 느껴졌던 '2000년' 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그 날은 정녕 장미빛 미래로 펼쳐질 것인가. 그 신세기에 대한 기대는 불안과 황폐한 오늘의 우리 건축현장 때문에 자꾸 어둡게만 느껴진다.

안타깝게 오늘 이 시점에도 도시환경을 개악(改惡)하는 시도는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호황은 기업을 낳고 불황은 고층빌딩을 낳는다"는 1920년대의 미국 풍자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작금은 다운타운, 신 개발지 할 것 없이 땅 값이 금이다. 그 중 몇 평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인 규제를 가하다 보면 사유재산침해가 될 수 있어 이해 당사자들은 어디선가 얻어들은 {주민참여}의 붉은 깃발만 냐다 높이 들고 소리치르기 일색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인위적 결과치는 자연의 역사, 도시의 역사 가리지 않고 파괴해 나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산야는 무의지적으로 또한 관습적으로 도장 찍는 몇몇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에 의해 파적(破寂)되고 있고 빈 땅은 모두 빌딩으로 환물되어 온통 돈과 쓰레기 냄새만 진동시키고 있다. 짝어져 가는 산악과 해안 절경, 시골길을 양분하는 고층 아파트, 러브 호텔... 더해서 용산(龍山) 공원, 경희궁(慶熙宮)... 등 빈 공간은 여기 저기 할 것 없이 몰(沒)계획적으로 파헤쳐져 국민들에 내던져지고 있다. 개발의 본뜻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있는 것만은 아닐 진데 정부, 지주, 전문가 모두 착각에 빠져 있다. 구석에 붙어 사는 거미(스파이더)만도 못한 모습들이다. 거미는 최소한 생존하기 위해 먹이를 걸리게 하는 {포획선}, 거미줄 자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축선}, 생식을 위한 {애정선}, 먹이가 걸린 것을 알려주는 {신호선}을 갖고 그들의 성실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나의 여행기록에는 남의 나라 도시건축의 칭찬으로 짝 차 있다. 그 나라에서 부러웠던 것은 도시에 남겨진 개울과 뒷골목, 그리고 역사 깊은 학문의 장(場)들이었다. 특히 영국의 캠브리지 다리에서의 상쾌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퀸스 칼리지 브릿지 가에는 푸른 숲과 호수가 띠를 이루며 둘러쳐 있어 영국 대학인들이 여유를 갖고 그곳에서 주어진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고고한 학문에 청량한 공기까지 더해져 신선함을 무한 증폭시키고 있었다. 캄보디아, 하노이에서도 나는 외국인이었다. 그 도시와 건축의 풍물은 현대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식없는 어깨를 가진 그들 건축가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단순 애국, 민족주의화해 가면서도 달려를 갖고 들어와 주길 바라는 외국인 관광객, 그나마 열떨결에 이 땅에 온 그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이름 모를 가든과 파크들, 15층 아파트, 호화 외제장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도심의 회색 숲 사이를 걸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느낄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밀려 창에 얼비치는 쟁반같이 둥근 혹은 멍석 만한 달 속에,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만이 보일 것이다. 식상한 그들은 오히려 경주(慶州)에서, 부여(扶餘)에서, 그리고 공주(公州)에서나마 과거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도대체 누가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먼 훗날 돌팔매를 맞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공범 아닌가. 나 자신 후대에게 미안해 먹고살려고 나선 이 길마저 때려치우고 1930년대의 '허송(許崇)처럼 시골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것에 향수를 갖는 거미 같은 생리의 보존주의자 마음은 복고주의적이고 단수적으로밖에 안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빼거덕 거리는 건물, 냄새나는 도시는 우리의 도시 이야기거늘. 몇 년전 한 외국인인, "이 태원을 이태원으로 놔 두라"고 데모하던 일이 새삼스럽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만도 그렇다. 학교가 오래되어 - 실제로는 40년밖에 되지 않았다 - 교지는 통째 팔려 나갔고 "공원으로 하라"는 소리는 한가한 자의 철없는 소리가 되었고. 건물 한 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파괴되어 나갈 것이다. '건물 한 채라도 옮기자'는 소리는 역시 '옮기는 값이 더 든다'는 소리로 되돌아 올 것이다. 물론 어떤 건축가는 땅 주인이 하라는 대로 '작품'을 할 것이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 설 차비를 할 것이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또 한 예들, 즉 화동(花洞)의 옛 경기중고는 그 당시의 화동적인 맥락으로 또한 정동(貞洞) 미국 대사관은 정동적 이미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얼치기 이론가들이 환경평가니 여론조사니 해서 소성화(塑性化)시켜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탄성(彈性)의 모미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자기가 크면 향아리가 된다. 도자기는 자기 크기를 갖고 있어야 그 이름이 어울린다. 어떤 도시와 건축도 그것을 확대시키면 자신의 이름을 잊게 될 것이다. 그 때는 명가(名家)도 명문(名門)도 없다.

도시와 건축은 {요변(窯變)}, 즉 가마 속의 온도변화와 같다. 땀나무의 열에 의해 호(壺, 향아리), 자기 등 자기(磁器)의 백미(白眉)가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이 기본적인 장인의식에 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온통 부화(附和)하고 있다. 패선적인 감각에 능한 꽤 많은 건축가들은 '뇌동(雷同)건축'으로 잡지적 승부에 빠져들고 있다.

남의 말을 빌리더라도, "우리는 유리상자 형태의 건물을 너무 많이 건설하여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모든 도시를 개성 없는 도시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개념에 이젠 싫증이 났다"고 필립 버게의 파트너(John Burgee)는 말한 바 있다.

용광로(Melting city)에서 뿜어 나오는 쇳물은 동일 타입의 건축을 만든다. 획일적인 로봇트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각(二脚) 구조물화한 물간과 다를 바 없다. 컴퓨터 설계란 것도 필요한 때는 삽입(Plug-In)하고 필요 없을 때는 빼어(Plug-Out) 쓰는 쉬운 기술로만 남게 될 것이다. 2000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 사고는 과연 어떤 것일까.

덴마크의 한 조각가 도르발센은 "시멘트는 죽음이고 대리석은 부활이다. 그리고 진흙은 삶의 표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할 새 연대는 진흙같이 흙 냄새 물씬한 응력(應力)과 변형(變形)이 합쳐진 건축일 것이다. 그 꿈을 버려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급변하는 이 시대에 건축만이 '열중 쉬어!' 할 수는 없다. 새로운 요구에 의한 새로운 건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획일에 의해 모든 도시가 한 줄로 서서 동일화 되어가는 모양새일 것이다.

버크민스터 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 1895-1983)는 그의 {부론(富論)}에서 "부(富)란 물질이며 에너지의 축적이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부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걸으며 쌓아온 인간의 정신이며 지식이다. 전자는 한계가 있으나 후자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오래 전 말이 다시 되새겨진다.